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1-12 (목요일)

[오늘의 한 줄]

미국 반도체 급등(SOX +5.66%)을 안고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1.5% 넘게 올랐지만, '젠슨 황 해임설'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.61% 내렸습니다. 엔비디아 이사회는 후임 CEO 물색에 들어갔고, 미국 개장 전 엔비디아는 7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1/12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- 코스피 5,342.73 (-32.63, -0.61%). 사흘 만에 하락. 0.20% 오른 5,385.94로 출발해 장중 5,458.84(+1.55%)까지 올랐다가 해임설에 5,293.05(-1.53%)까지 밀리는 등 큰 진폭으로 오르내렸습니다. 연중 고점(6/22 9,114.55) 대비 -41.4%, 하반기 고점(9/23 7,080.92) 대비 -24.6%. [계산]
- 코스닥 696.53 (-8.57, -1.22%). 700선을 하루 만에 반납. 장중 687.40까지 하락.
- 공포지수(VKOSPI) 51.32 (-2.73%). 하락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50대의 높은 수준.
- 반도체: 삼성전자 208,000원 (+0.97%), SK하이닉스 125.4만원 (-1.80%), 삼성전기 886,000원 (-4.01%).
- 전력기기 3종: HD현대일렉트릭 421,000원 (+3.95%), 효성중공업 183.7만원 (+2.45%), LS일렉트릭 124,500원 (+2.13%).
- 원화는 21시 기준 1,333.1원 부근 (-4.4원). 이날은 11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

출처: 연합뉴스 마감 기사, 헤럴드경제, CoreJang(VKOSPI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2138000008
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935438
https://www.corejang.co.kr/briefs/2026-11-12-close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- 코스피: 외국인 +3,705억원(3거래일 연속 순매수), 기관 -6,911억원(금융투자 -9,753, 사모 +2,120, 투신 +727, 연기금등 -27), 개인 -2,040억원(4거래일 연속 매도), 기타법인 +5,243억원.
- 코스닥: 개인 +3,075억원, 기관 +437억원, 외국인 -3,535억원(하락 주도).
- 누적(9/23부터 33거래일, 네이버 기준 집계 이어 계산):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8조457억원, 코스닥 약 2조471억원. [계산]
- ※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(위 표는 15:35 기준).
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2137200008

■ 미국 시장 (11/11 수요일 마감)

- 반도체 주도로 일제히 상승: 다우 +0.49% (52,486.49), S&P500 +1.31% (7,619.38), 나스닥 +1.60% (25,466.19)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5.66% (10,564.11).
- 코어위브 +24.71% (60.77달러). 실적 발표 다음 날 급등. 마이크론 +11.89% (811.30달러), 샌디스크 +13.69% (977.69달러), 오라클 +8.82%, 엔비디아 +2.87% (173.73달러), 팔란티어 +2.12%, 구글 +2.11%.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-2.26%, 메타 -1.97%, 아마존 -1.74% (266.17달러), 아이온큐 -2.66% (34.06달러).
- 코어위브 최고경영자가 CNBC에 나와 "인프라 수요가 세계의 공급 능력을 앞지른다"며 2027년 남은 생산능력의 10배 수요, 2028년 물량도 이미 초과 청약 상태라고 말했습니다. 잔고(백로그) 1,325억달러, 연간 투자 계획 하한을 370억달러로 상향.
- 메모리 급등의 배경: 트렌드포스가 4분기 디램 계약가 +10~15%, 낸드 +15~20% 상승을 전망. 마이크론은 2027년 생산분의 75% 이상이 이미 계약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
출처: 야후파이낸스, 연합뉴스(종합2보 외)
https://finance.yahoo.com/technology/ai/articles/micron-sandisk-soar-coreweave-ceo-212511602.html

■ 엔비디아: 이사회가 젠슨 황 거취 결정 회의

- 이사회가 11일(현지) 황 CEO의 거취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고, 외부 업체와 후임 CEO 물색에 들어갔습니다. 정식 후임을 찾는 동안 임시 CEO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 (로이터·블룸버그·WSJ 보도 인용).
- 사흘 전 "젠슨과 경영진을 믿는다"던 입장이 뒤집혔습니다. 배경: 앨리스 황이 황 CEO와의 관계를 악용해 중국 수출 금지 칩 75억달러어치를 밀반입했다는 보도(디인포메이션), 직속 부하 여성 임원과의 추가 혼외관계 의혹, 연방 의회의 출석 요구와 조사 예고. 백악관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WP는 전했습니다.
- 시장 반응: WSJ의 해임 준비 보도에 시간외 8% 넘게 급락했고, 12일 미국 개장 전에도 약 8% 하락 중. 이사회가 조사를 발표한 이후 줄어든 시가총액을 가디언은 약 6,850억달러로 집계했습니다. 반대로 AMD와 브로드컴은 개장 전 3~4% 오르며 고객사의 칩 구매 다변화 기대가 나옵니다. 번스타인은 12일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200달러로 반토막 냈습니다. 17일 예정된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입니다.
출처: 연합뉴스 종합2보, CNBC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2020753072
https://www.cnbc.com/2026/11/12/nvidia-nvda-jensen-huang-second-affair.html

■ 앤트로픽 IPO: 수요가 물량의 수 배

- 로드쇼 이틀째, 블룸버그는 '앵커급' 대형 수요에 힘입어 공모 물량의 수 배에 달하는 청약이 이미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. 엔비디아·마이크론 등 기술 기업으로부터 260억달러 규모의 별도 투자도 계획에 포함됐고, 주관사 추가매수 선택권(그린슈)도 공개됐습니다.

- 공모 범위 기준 완전희석 가치 약 1조4천억달러. 이르면 다음 주 목요일(11/19) 상장. 오픈AI는 1조2,500억달러 가치로 110억달러 우선 조달을 마쳤고, 3분기 매출 100억달러(전 분기 대비 +50%), 조정 영업손실 109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앤트로픽의 9월 분기 매출은 169억달러(+46%).
출처: 모닝스타(마켓워치)
https://www.morningstar.com/news/marketwatch/20261111138/anthropics-ipo-roadshow-kicks-off-and-the-big-money-is-already-lining-up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- 미 국채: 11일은 미국 공휴일(재향군인의 날)로 재무부 확정 금리가 없습니다. 최신 확정은 10일(10년물 4.98%, 30년물 5.35%). 10년물은 10일 장중 한때 5%를 넘기도 했습니다.
- 한국 국채 3년 3.733% (보합). 일본 30년물은 오늘 확인 가능한 값을 확보하지 못했고, 전날 3.88~3.94%대에서 거래됐습니다 (진행 중).
- 유가: 이란·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와 OPEC+의 10월 증산(사우디 주도)에 하락. 브렌트 91.62달러 (-1.2%), WTI 85.49달러 (한국시간 오전 기준, 이후 진행 중). 미 원유 재고는 주간 900만 배럴 증가(API), 공식 통계(EIA)는 공휴일로 하루 늦은 목요일 발표.
-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: 항공유 갤런당 4.198달러, 경유 4.823달러 (11월 2~6일 주). 이후 주차는 아직 미게시.
- 금 3,950달러 부근 (-1.3%, 진행 중).
출처: CNBC, 미 재무부, EIA
https://www.cnbc.com/2026/11/12/oil-prices-fall-over-1-on-hopes-for-iran-ukraine-peace-talks-.html

■ AI 가격 신호 3종 (11/11 미국장 기준)

왜 보는가: AI 투자 열기의 온도를 재는 세 가지 온도계입니다.
1. 반도체 대 나스닥 괴리: 최근 20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-9.59%, 나스닥 -4.60%로 괴리 -4.99%p. 전날(-10.24%p)에서 절반으로 축소. [계산]
2. 빅테크 대 취약 AI 평균 낙폭 (6개월 최고가 대비):
빅4(엔비디아·마이크로소프트·메타·알파벳) 평균 -19.97%, 취약 5종(팔란티어·아이온큐·코어위브·오라클·블루아울) 평균 -37.87%. [계산]
3. 나스닥 고점 대비: -7.73% (전날 -9.18%에서 개선). [계산]

[판단]

- 기조: '수요는 진짜'라는 증거(코어위브의 초과 청약 잔고, 메모리 가격 상승, 앤트로픽 흥행)와 '사람이 흔들린다'는 리스크(창업자 해임 절차)가 같은 날 부딪혔습니다. 한국장은 미국의 반도체 급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너 리스크를 택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AI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라, 수장의 공백은 단일 회사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그래도 수급의 밑바닥은 바뀌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샀고, 반도체 대 나스닥 괴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해임이 결정되더라도 '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'는 평가(아이엠증권)가 나오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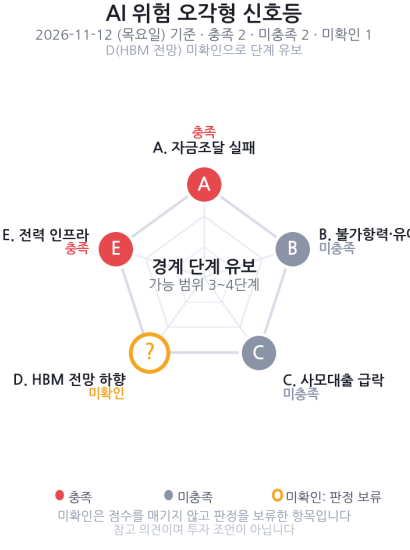
이유입니다.
- 판단을 바꾸는 조건: (1) 황 CEO 거취 결론과 후임 윤곽 - 외부 영입이면 전략 변화 가능성까지 봐야 합니다. (2) 11/17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대로 나오는지, HBM·칩 수요 전망이 유지되는지. (3) 11/19 앤트로픽 상장이 초과 청약대로 완료되면 A 조건(자금조달 경색) 해제를 검토합니다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342.73 아래일 것" - T+1(11/13, 금), T+5(11/19, 목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[복기]

어제와 닷새 전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1/11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375.36 아래일 것" (T+1, 11/12 검증) → 실제 종가 5,342.73. 적중.
- 11/5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383.80 아래일 것" (T+5, 11/12 검증) → 실제 종가 5,342.73. 적중.
- 해석: 두 건 모두 오너 리스크가 반도체 호재를 누른 흐름과 맞았습니다. 누계 29건 중 17건 적중.
- 한계: 이 복기는 '종가가 어제보다 낮을지'만 맞추는 단순한 규칙의 성적표이고,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적인 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. 실력의 증거가 아니라 참고 기록입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

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충족 (유지). 네비우스의 하이일드 채권 철회와 발행 보류 건은 그대로입니다. 반면 앤트로픽은 물량의 수 배 청약에 기술 기업 260억달러 별도 투자까지 확보해 '최상위 개방·하위 폐쇄' 양극화가 더 선명해졌습니다. 11/19 상장이 상향된 가격으로 완료되면 해제를 검토합니다.

출처: 로이터, 온인베스트(WSJ 인용)
https://www.investing.com/news/stock-market-news/banks-investors-grow-wary-of-ai-debt-spooked-by-marketselloff-5011246
https://en.oninvest.com/article/wsj-weak-links-suffer-first-as-high-yield-bond-market-all-but-closes-to-neoclouds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미충족. 새로 확인된 통보가 없습니다 (9/24 오라클 건은 30일 창 밖).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미충족. 아폴로 -14.4%, KKR -13.2%, 블랙스톤 -18.3% (11/11 종가).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확인. 회사 공시 하향은 여전히 없습니다. 다만 창업자 해임 절차가 실적(11/17)과 장기 계약에 미칠 영향이 커져, 확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. 번스타인의 엔비디아 목표가 반토막(400→200달러)도 회사 공시가 아닌 증권사 판단입니다. 삼성·SK의 '완판' 입장은 유지이고, 4분기 디램·낸드 가격 상승 전망(트렌드포스)은 수요 쪽 근거입니다. 증권사 목표가 하향은 공시가 아니므로 미충족이 아니라 미확인을 유지합니다.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버노바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(유지). GE버노바 -31.2%, HD현대일렉트릭 -67.8%, 효성중공업 -56.2%, LS일렉트릭 -56.9% (한국 3종 11/12 마감, GE버노바 11/11 종가). [계산]
- 종합: 충족 조건은 A와 E 2개('3단계' 해당).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(가능 범위 3~4단계)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,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(끝)